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9
옥천군 환경과 박병욱 과장 인터뷰

8 실개천과 금강 2

14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11

18 대청호 정책토론회 -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 방향 모색

24 정책&이슈

26 서화천거버넌스 활동보고

32 회인천거버넌스 활동보고

36 대청호 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 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34

발행일 2022. 5. 25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임정미
사무처 임정미, 김재곤,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점점 더워지고 있는 2022년 여름입니다. 깨끗한 대청호를 만들기 위해 도랑을 청소하시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많이 보러 오세요.(관련 지면 28~35쪽)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옥천군 환경과 박병욱 과장 인터뷰

박병욱 환경과장 약력

1969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출생
1995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졸업
1997 옥천군 7급 공채 입문
2002 기획감사실
2007 동이면
2007 안내면 팀장 보직
2014 재무과
2015 기획감사실
2017 환경과
2019~ 환경과장 보직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더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한 옥천군청의 환경과 박병욱 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5월 중순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위치한 옥천군청에 방문하여, 과장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유성우가 내리던 아름다운 내 고향, 옥천

박병욱 과장은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에서 태어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옥천읍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생활하고 계신다. 평생을 함께 해온 만큼 옥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다.

“저는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던 어린 시절에 옥천읍에 이사 와서 강에서 헤엄도 치며 물놀이도 하고 붕어와 송사리도 잡고 마을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하며 유년시절을 보냈었죠. 어렸을 때 막걸리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옥천읍에서 석탄리 까지 걸어가서 조개를 잡아와 집안 어르신께 드리기도 하면서 지냈었죠. 그 때 살면서 유성우를 처음 보았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성우를 누워서 보았는데 아직도 그 황홀했던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몰되어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엔 백사장도 있었고 하얀 자갈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았죠. 백사장에서

두꺼비 집도 만들며 놀기도 했고 싸리비로 날아다니는 잠자리도 잡기도 하고 자갈밭에 있는 돌이나 바위를 보며 이것은 무엇처럼 생겼다, 저것은 어떤 것 같다 하며 재밌게 놀기도 하였죠. 그 때는 버스비도 없어서 형들이나 아저씨들을 따라 걸어 다니며 풍경도 보고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을 가기 위해 잠깐 옥천을 떠났다가 다시 옥천에 돌아왔을 때 제가 알던 옥천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제 추억이라고 할 만한 곳들은 제 기억속의 모습과 너무 나도 달랐습니다. 맨 처음 금강 유원지에 갔는데 사람만 우글우글하고 제가 알던 편안한 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또 강가로 내려가서 합금리까지는 갈 수가 있었는데 반대쪽은 갈 수가 없더라고요. 수몰된 이후엔 더 이상 제가 알던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에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선생님을 꿈꿨지만 공무원의 길로…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의무발령지로 들어가면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 때 임용고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다들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용고시를 보았지만 일부는 끝까지 안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가진 재주가 팬대 굴리는 것 밖에 없어서 공무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교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전하는 진심

“저는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옥천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읍면에서만 7년 반을 근무했죠. 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내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주민분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늦은 밤에 신고가 들어왔었죠. 그 늦은 밤에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 때는 주민들이 신고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갔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할머니 한 분이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공무원들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 알았다고 해도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죠.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넘게 근 1년 가까이 매일 1톤 트럭에 마대를 싣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혼자 나가기도 하고 직원들도 데리고 가기도 했지만 거의 혼자 나가서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리 밑에 깨진 유리 조각부터 냇가 옆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줄을 타고 내려가서 모든 쓰레기들을 마대에 담아서 끌어올리면서 치우고 있었죠. 그 때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보시고는 왜 이걸 직접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걸 누가하냐고 그냥 본 누군가가 하면 되는 거죠 라고 대답하였어요. 그 이후로 환경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고, 언젠가 냉장고가 버려져 있어서 이장님에게 트랙터로 끌어 올려 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장님들과는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것이 보여요.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청호 도선 운항에 대한 생각

박병욱 과장은 최근 환경부에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를 개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청호 도선 운항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도선은 옥천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로 인해 옥천군의 위, 아래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리적 한계나 시설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메리트가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정지용 생가 등 옥천군의 관광시설을 군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청호 주변이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지역을 서로 연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으로는 옥천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선을 통하여 여러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볼 것이 많아지면, 농촌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나 단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옥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선은 생태, 환경, 문화라는 측면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과 단체가 함께 합심하여 잘 추진한다면 오히려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박병욱 과장은 대전, 청주 등에서 대청호 도선 운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이 다른 부분은 존중한다고 하며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도선 운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사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과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안 해본 것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옥천군에 대청호로 인해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옥천군에 원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회도 한번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다가 환경문제 등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대청호를 오염시키고 녹조의 원인이 되는 오염원이 도선 운항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속내는 모르지만 석탄리 등 마을주민들은 환경에 역행하는 개발은 좋아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하기에 대청호 수환경을 깨끗이 보존하면서 우리가 대청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끝이다’라고요. 이제 마을 주민들도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마을의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갑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대청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잃은 게 많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원관리를 위해서 규제도 필요하고 자제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과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야할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을 희생시켜서 다른 지역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도 똑같이 사람이 살아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인식해주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도와주고 다른 곳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글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강경포구 그리고 금강

한여름의 금강입니다

이수길 대한민국 5일장터문화 전문가를 만난 것은 강경포구 옆의 한 식당입니다. 이수길 장터문화전문가는 대한민국의 5일 장터를 10년 이상 직접 다니면서 장터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절, 자식들과 집안을 살린 사람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란 생각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5일 장터에서 4~50년을 한결같이 같은 장소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린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이수길 장터전문가입니다

강경포구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야기는 그의 저서 '아무이, 비 오는 날을 나가지 마이소'「도어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강경포구 옆의 식당에서 그를 처음 만난 날, 부산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와이프가 고장 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깊은 소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5일 장터를 알리기 위하여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경역에 내리면 바로 시장이 연결되며 많은 관공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젓갈 시장으로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시골 동네가 대한민국의 3대 시장(평양, 대구, 강경)으로 발돋움 한 것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

라갑니다. 군산항이 개항되면서 배를 통하여 싣고 온 많은 물건들은 강경포구로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강경포구는 수심이 깊고 수량이 많아 큰 배와 작은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포구는 천혜 적 환경으로 배를 접안 할 수 있는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100여 척도 들어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경포구에 들어오는 배들은 생필품인 기름, 성냥, 사탕 등이 있고, 부여나 공주에서는 쌀이나 면화 등을 싣고 왔다고 합니다. 강경으로 들어온 물건들은 주로 장날을 통하여 팔려 나갔으며 중국인과 일본인의 상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금강유역에서 생산된 쌀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개통되고, 강경과 부여 세도를 잇는 황산대교가 개통되면서 강경포구의 상권은 쇠락했습니다. 지금은 젓갈시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경역을 나와서 젓갈시장을 한바퀴 돌고 포구로 발길을 옮깁니다. 포구 옆의 야산에는 전망대가 있어 포구가 한 눈에 보입니다. 전망대는 넓은 바윗돌 위에 요새처럼 서 있습니다. 오른쪽 강물은 부여나 공주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왼쪽 강물은 서천을 지나 군산으로 빠져나가는 강물입니다. 강의 하류라 물이 느리고, 상류에서 내려온 흙을 품고 있어 항상 흙탕물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팔괘정이라는 정자가 나옵니다. 이곳은 조선 인조 때 우암 송시열이 세운 건물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추모하여 제자들에게 강학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옛 어른들이나 현대인들은 전망 좋고 안온한 곳에 집을 짓고 공부하며 살고 싶었던 것은 같았나 봅니다. 팔괘정 옆에는 대나무 밭이 있고 죽림서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글을 읽는 선비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팔괘정, 죽림서원, 대나무 그리고 흘러가는 강물을 보니 누구라도 이곳에 서면 시인이 될 듯 합니다.

강경포구의 등대로 발길을 옮깁니다. 등대는 그 옛날 수 많은 배가 물건을 싣고 와서 문전성시를 이룬 강가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강물을 보면서 한가로이 서 있지만, 그 앞에서 강물을 보고 있노라니 저 멀리와 가까이에서 많은 배들이 손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큰 소리가 들립니

옛 강경포구입니다

팔괘정입니다

강경포구 등대입니다

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의 소리가 섞여 있지만, 상인들은 눈짓, 손짓, 발짓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문자나 숫자가 없었던 선사시대에도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을까요?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경읍내를 지나는 강경천과 논산에서 내려오는 논산천이 금강에서 만나 내려갑니다.

강둑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강경과 부여 세도를 잇는 황산대교가 보입니다. 황산대교의 개통으로 부여와 강경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고수부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리 밑에 서서 강물을 보고 있는데 움직이는 녀석이 보입니다. 직감적으로 남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생이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통틀어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습니다. 이곳 강가에서 남생이를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녀석은 숨을 쉬기 위하여 올라왔다가 잠수 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약하고 먹이가 풍부하고 수온이 높으니 살아가기 좋습니다. 이 땅에서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남생이들이 늘어나서 천연기념물이 아닌 동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연기념물이 되면 좋아 하는데 사실은 반대지요. 얼마나 보호를 못하고, 환경이 오염되었으면 천연기념물이 되었을까요? 천연기념물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강둑을 따라 아래로 걸어 봅니다. 강물은 흐르고 하늘은 푸르릅니다. 강가에는 갈대가 바람에 날리고, 참새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 하얀 날개를 자랑하는 쇠백로도 보입니다. 잘 정리된 자전거 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강 가운데 섬이 보입니다. 하중도입니다. 농토가 귀했던 시절, 저곳까지 배

남생이입니다

금강의 하중도입니다

를 타고 들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거름과 비료, 농약은 땅과 강을 오염시켜 지금은 농사를 짓지 못하지만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조그마한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한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중도 옆에 오리들이 한가로이 놀고 있습니다. 하중도와 강가의 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색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물의 색은 변함이 없지만 하늘과 구름은 매일 다르고, 강가의 풀들은 연두빛, 녹색빛, 갈색빛, 흰옷으로 다양한 변신을 합니다.

장수의 뜬봉샘에서 시작한 물줄기는 흘러 흘러 이곳을 지나 서해로 들어갑니다.

강둑의 군데 군데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앉아서 가지고 간 커피를 마시며 둘러보는 하늘과 강물은 그만이지요!

오늘은 2022년 2월 9일 강경장날! 멀리 상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면서 소리치는 상인들의 큰 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글 **여규용** 6기 대청호 해설사

쓰레기, 무관심을 넘어 관심으로 가자

봄기운 가득한 날 대청호 오백리길 걷기에 나섰다.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볼 겸 나선길 반가운 선생님들을 만난다. 오백리길 21구간 로하스길에서 물문화관 까지 걷는다. 꽃이 피고 푸른잎이 무성해지는 모습이 아름답다. 조정지댐에 비친 반영이 천변을 걷는 발걸음을 즐겁게 한다. 댐 주변에 핀 병꽃의 다양한 색깔에 대하여 앞장선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오백리길 걷기팀은 날짜를 정하여 매달 두 번 정도의 시간으로 만난다.

주말과 주중을 적당히 조절하여 가능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걷기는 단출하지만 가족 같은 정겨움으로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항상 쓰레기에 대해서 말로는 관심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돌아서면 그 심각성을 망각하고 습관처럼 쓰레기를 만들고 버린다.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처럼 간다면 2100년에 1.5도 오를 것이라는 지구 온도가 5년 안에 올 수도 있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다.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잠자리 종류가 포천지역에서 몇 년간 계속 발견된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아열대화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냥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모골이 송연할 만큼 걱정스럽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 온도는 오르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는데에는 우리가 마구 버린 쓰레기들이 한 몫을 한 것이다. 오늘 오백리길을 걸으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걷는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볼 계획이다.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모습

가슴을 펴고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여 마신다. 시원하다. 이른 아침인데도 잔디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잡으신다. 휴일을 맞아 가까운 이곳으로 나와 답답한 일상을 보낸 것에 대한 위로를 받으시려는 것이라 생각 한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정겨운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가벼운 마음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수변 테크길로 내려선다. 물빛이 참 편안하게 다가온다. 멀리 물 위를 낮게 나르는 물새들과 고요한 물속에 잠긴 앞산의 반영이 우리를 반긴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시간이 행복하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참으로 행복하다. 호수 주변으로 만들어진 테크길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름다운 풍광과 고즈넉함일 것이다. 오늘도 그런 기대를 안고 걸어 본다.

마구 버려진 담배꽁초들

조정지댐을 지나 본 댐 근처에 도착을 한다. 웅장한 댐을 바라보며 이 댐이 만들어지기까지 기울였을 노력을 생각한다. 초록빛 그늘 아래서 잠시 머문다.

우리처럼 이곳에 들러 쉬어가라는 뜻으로 만들어 둔 벤치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살펴보니 마구 버려진 담배꽁초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있었다. 준비해간 쓰레기 봉투에 주워 담으며 드는 생각은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의식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진다. 담배꽁초뿐이 아니다. 차량 속에 있던 쓰레기조차 던져 버리고 간 것을 주워 담으며 정말 이래서는 큰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우리가 먹는 물까지 오염시킨다는 사실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해양이 오염되고 바다에 떠 다니는 쓰레기 섬이 되어 있다는 뉴스를 본적있다. 요즘 많은 환경 운동가들과 양식 있는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 한다. 지금도 서서히 닥쳐오는

기후위기를 이런 정신으로 이겨 낼 수 있을까 걱정된다. 조금 잘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들도 덩달아 힘든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각자 손에든 쓰레기 봉투가 걸으며 주워 담은 쓰레기들로 가득하다. 우리 일상에서 만들어 지는 쓰레기는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 라는 거다. 학술적으로 99.98%가 쓰레기라고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쓰레기라는 뜻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쓰레기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생활 모든 것을 황폐화 시킨다. 가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마을교육을 나가기도 한다. 분리배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접근해 가다 보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다.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도 가끔은 헛갈릴 때가 있다. 아껴쓰고 다시쓰고 바꿔쓰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아야 한다. 나부터 바뀌어야겠다. 다시 발길을 재촉하여 대청댐 광장으로 오른다. 그 사이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주셨다. 마침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올라가는 우리를 본 어느 시민 분께서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곳 공원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신다. 처음엔 사양을 했지만 극구 대접하겠다고 하시니 목이 마르던 차에 모르는 척 하고 자리에 앉았다. 쓰레기를 줍는 우리들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신다. 참 고맙다. 이것이 사람사는 맛이고 즐거움이고 작은 보람이 아닐까 생각 한다.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우울했던 마음이 맑게 개었다. 대청호 광장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유난히 아름답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내가 버린 것이 아닌데 하는 무관심이 아닌가 한다. 누가 버렸던 눈에 뜨이는 대로 주워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줍는 사람들이 늘어 나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버리고 싶은 사람도 주춤하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같이 줍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한다. 예전에 뉴스로만 보던 쓰레기를 몰래 매립하거나 대형차로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마음 아프고 상실감이 컸던 기억이 있다. 나만 좋자고 몰래 매립하는 일 정말로 어리석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만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법으로라도 큰 벌을 받아야 한다. 정말 양심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분리배출을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안내를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분리배출 장소에 가보면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든다. 분리배출의 기본요소만 잘 기억 하면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다. 조금 들어가는 수고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한 소중한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간다. 씁쓸하게 시작했던 하루가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맑은 마음으로 바뀌고 이어지는 담소로 다음을 기약하게 되니 하루의 수고로움이 행복으로 보상받은 기분이다. 그런 마음 뒤로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싶은 것은 버려진 쓰레기는 우리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건강하지 않은 미래를 약속 할 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다. 이곳 대청호 잔디광장을 오래도록 우리들의 쉼터이고 힐링의 장소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 활동을 위하여 여기저기 많이 돌아 다니게 된다. 그럴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은 지금처럼 마구 버려진 쓰레기들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다. 어디는 가도 깨끗한 곳이 별로 없는 현실이 참으로 불편하기 그지없다. 지자체 마다 축제를 한다고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 참으로 바람직하고 응원해 줄만 하다. 그러나 그 축제의 뒤를 보라 지나고 난 자리를 보면 이건 축제인지 쓰레기공장인지 분간이 않 될 때가 있다. 이제는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기획해야 하고 그것을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하고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제를 위하여 돈을 들이고 끝난 후 쓰레기 치우는데 또 돈 들이고 한다면 그야말로 비 효율적인 축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금은 아쉽고 어두운 마음이지만 희망을 갖는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 모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나라 정말로 살고 싶은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꿈과 희망이 허황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희망을 간직하고 싶다. 올 봄에는 유난히 푸르름이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청호와 쓰레기문제 즉석 토론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 망 및 도선 운항 관련하여

토론회 전체

지난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옥천군 다목적 회관에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안 및 도선운항 관련하여 우리단체가 주최하고 우리단체 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임정미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 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재종 옥천군수가 방문하여 “ 도선운항 관련 정책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40년동안 상수원에 살면서 대청댐의 물을 보전하기 위한 애를 쓰셨고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환경부에 도선을 요구했고 교통의 편의성을 얻고자 계획을 했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운영방안 합리성 등이 토론회 주제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주민들이 보전과 이용을 할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되고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토론회를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책토론회는 우리단체 정책연구위원장인 충북대학교 맹승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발표로는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송철민 팔당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맹승진 정책연구위원장

책임연구원이 준비하여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으로는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 박문석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 주무관, 배명순 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송윤섭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마을대표,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순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주교종 대청호정책협의회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이 “옥천군 대청호 친환경전기도선 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도선 운영구간을 안내면 장계리에서 안남면 연주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대청호 환경보전과 대청호가 휴식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 제공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도선은 옥천군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환경부와 협의 할 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대중교통에 준해서 운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여 옥천지역에 민간 환경아카데미 운영, 환경단체육선, 환경교육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

옥천군 박병욱 과장 주제발표

송윤섭 안남면 대표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이 상수원을 보호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이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해왔고 행정예고안의 규정 내용의 중복성과 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중 소득증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외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며 유람선으로 받아 들여 지는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로 송철민 책임연구원이 “특대고시 유도선 사업관련 팔당수계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팔당댐 지역 사례를 예를 들어 현재 생태학습선이라는 교육목적으로 선박을 운영하고 있고 이 지역에 수상레저 사업을 정리해야함에도 정리가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송윤섭 안남면 대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송윤섭 안남면 대표는 교통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이번 도선 추진계획을 크게 환영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적 도선 기능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옥천군에서 주진하는 도선이 30톤 40인승 전기도선선박이라고 하는데 도선인지 유람선인지 구분가지 않는다고 하며 친환경 생태관광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생태관광지역으로 이용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하는 것이 대청호 보전과는 거리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성격이 된다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라면 지양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은 옥천군이 현재 준비하는 도선은 30톤 선박에 40인승 도선은 유람선에 중하는 선박이라고 하며 주민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외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안내면가지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얼마만큼 겪고 있는지 도선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관광활성화사업이 큰 규모로 운영하는 곳 외에는 적자라서 지방세수가 많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설보다는 마을의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여 관광활성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옥천군의 내심은 유람선인 것 같다고 하며 옥천군에서 계획한 도선운행의 경제성의 문제와 생태관광 연결의 모순들을 이야기하며 옥천 지역뿐만 아니라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대전을 포함한 하류에서도 설명회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우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필요한 도선은 검토해야하지만 도선과 유람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하며, 옥천군이나 금강청에서 배를 운행한다고 하며 민간업자들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청호로 인한 옥천군의 피해가 도선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주교종 대청호정책협의회위원은 옥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문제에 대청호 하류지역사람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도선에 대한 선입견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와 비교하며 옥천에서 수질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아무 미약한데 필요이상의 반응을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선이라는 전제를 두고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지역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지역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상생발전부 선임연구원은 상하류 간의 큰 입장 차이를 느낀다고 하며 한 두 번의 토론회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하며, 옥천군에서 계획한 것은 도선이며 그 안에서 유락을 즐기거나 낚시하는 것을 감시해야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대청호로 인한 상류지역 규제로 사회적 약자가 된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의한 오염은 기름유출에 의한 것이고 옥천군에서 계획한 도선은 친환경 전기 태양광 도선인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문석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 주무관은 40여 년 동안 대청호 지역 중복

주교종 대표와 배명순 박사

박문석 주무관

이순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표명하며, 충주호, 소양호, 진향호 등에서 유도선 운항이 허용되어 있음을 예시로 들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선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선박으로 유람선과 니능이 다름을 강조하였고, 하류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염려하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은 국립공원 예시를 들어 대청호 유역도 주민이 있어야 관리가 되고 가꾸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도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방영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환경부 고시안에 누구든지 고시문안을 읽었을 때 각자의 위치에 따라 문안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면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맹승진 정책연구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방안과 관련하여 각 기관, 단체, 주민들이 생각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며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대지역이 지정된 이유와 원인, 도선에 대한 예산, 이용객,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세 주제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글 **임정미** 대청호운동보전본부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회, 환경정책포럼 기획회의 운동본부 20년 역사 진단 및 중장기발전 로드맵 정책콘서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맹승진)는 지난 5월9일 오후 5시, 노은동 예가에서 10명(이사 및 정책연구위원)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주년기념 환경정책포럼 기획팀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맹승진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기획회의에서 정책포럼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다양한 의견이 도출된 가운데 무거운 주제로 형식적인 포럼을 지양하면서, 대청호보전운동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의미한 환경정책토크콘서트를 기획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또한 7월 15일 최병욱 이사장(한밭대학교 총장) 및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이 공동 주최하는 가운데 운동본부와 역사를 함께 했던 전현직 주요 임원과 네트워크 회원들이 함께 꾸미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결정되었다.

위원들의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가운데 정책토크콘서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재미난 방식을 고려하여 2차 기획팀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2002년 4월11일 창립한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청호 상하류 지역네트워킹을 통해 민관학계 협력을 꾸준히 이끌어온 연대기구로서 그동안의 20년 역사를 진단, 재평가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맑은 서화천을 위해 올해도 함께 뜁니다!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활동 시작~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이하 서화천 거버넌스)의 활동이 올해도 시작되었다.

마을하천가꾸기, 도랑살리기, 친환경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실천 활동을 전개해오던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15년부터 대청호 직유입 하천인 서화천 유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2015년에 '서화천 유역 신고미만 축사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실천운동'이라는 사업으로 서화천 유역 중 옥천군 군서면, 군북면의 방치 가축분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총 22곳의 291톤의 방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성과를 보이며 시작한 서화천 유역에서의 활동은 2016년에는 가축분뇨조사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비점오염원조사와 이를 체계화한 관리매뉴얼을 구축하였다. 2017년에는 서화천의 지류인 금구천까지 확대되었고, 지역주민들이 단순한 정화활동이나 교육과정을 넘어서 방치가축분뇨 조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화천 거버넌스 활동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연구과제로 운영되었고 주민환경리더 및 마을모니터링단이 구축되어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었고 2019년부터는 금산군 추부면 추풍천까지 활동지역이 확대되었다. 지난해와 올해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민간단체지원사업에 사업이 선정되었다.

올해는 하천모니터링 활동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리더 1명과 하천모니터링단 2명을 위촉하여 지난 3월 18일 발대식을 실시하였고 3월 22일부터 하천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되어 매주 옥천군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금산군 추부면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천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홍보현판을 제작하여 오염지점마다 설치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옥천군 및 금산군과 협의하여 투기, 소각된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 및 거버넌스 운영위원 방문도 3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추부면의 여러 마을을 방문하여 이장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올해 마을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였

고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읍장 및 면장과의 간담회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 읍면의 여러 마을들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혀 왔다.

지난 4월 28일에는 거버넌스 1차 운영위원회도 실시되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을 보고하고 운영위원장 선출, 올해 사업계획 세부 논의 및 일정 확정 등을 논의하였다.

마을 실천활동도 3월부터 활발하게 펼쳐졌다.

지난 3월 29일에는 군서면 은행리(상은행리, 하은행리)에서 정화활동이 실시되었다. 상은행리와 하은행리 두 곳에서 약 7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쓰레기봉투 65장, 마대 105자루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4월 7일에는 군서면 월전리에서 정화활동과 분리수거 환경교육이 실시되었다.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봉투 30장과 마대 50자루를 수거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분리작업까지 진행하였다.

4월 16일에는 군북면 자모리에서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이 실시되었다. 약 5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봉투 50장, 마대 120자루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마을회관에서 실시한 환경교육에서는 분리배출 방법, 마을도랑 가꾸기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였다.

5월 12일에는 군서면 오동1리에서 정화활동과 분리수거 환경교육이 실

시되었다.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봉투 20장과 마대 40자루를 수거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분리작업까지 진행하였다.

5월 14일에는 추부면 용지1리에서 정화활동과 분리수거 환경교육이 실시되었다. 약 5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봉투 60장과 마대 100자루를 수거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분리작업까지 진행하였다.

5월 17일에는 군서면 동산리에서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이 실시되었다. 약 30여명이 참여하였고, 쓰레기봉투 50장과 마대 100자루를 수거하였다. 정화활동 후 마을회관에서는 천연비누만들기 및 깨끗한 마을과 도랑만들기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5월 21일에는 군북면 이백2리에서 정화활동과 분리수거 환경교육이 실시되었다. 약 3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봉투 70장, 마대 40자루를 수거하였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였다.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이 도랑과 하천으로 내려가 열심히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마을에서의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마을 정화활동을 통해 수거된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위탁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수거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 되었다.

앞으로는 쓰레기의 양 뿐만 아니라 오염원 지도작성, 마을에서 발생한 것인지 외부에서 떠내려 온 것인지 등 발생 특성 분석, 어떤 종류의 쓰레기 인

지 성상 분석,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 등까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영농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 파쇄기를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마을에 비가림 분리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파쇄기를 지원하여 영농폐기물의 소각을 방지하고자 계획하였다. 특히 수확기에는 하천변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영농폐기물이 많이 소각되는데 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9월 말 또는 10월 초에는 서화천변 수상 및 육상 민관협력 대청결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추부면의 4곳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영어조합과 함께 서화천 수상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올해 사업을 통해 서화천 유역의 마을과 하천의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주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보고

지난 2020년 초부터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이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있어 더욱 대청호가 더 맑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

는 하천 중 한곳인 회인천 유역에서 올해도 어김없어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인천 거버넌스는 회인천과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축분관리에 중점을 두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강유역환경청과 공동사업으로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거버넌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4월 31일 거버넌스 1차 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회의에서는 용곡라 마을 죽은 버드나무 문제

가 제기되어 운영위원들이 함께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 첫 활동으로는 지난 2021년 회인천 지역 축분관리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4월 회인천 지역 축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소멸지역 11곳, 연속지역, 51곳 신규지역 7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비가림 상태가 미흡하거나 우려되는 곳은 비가림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방치축분 조사와 함께 회인천 지역 하천변 소각지역 조사도 함께 하여 소각지역에 대한 안내판 또한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2022년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 모니터링단은 여섯마을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각 마을에서 모니터링을 해주실 분들 선발하여 6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매월 2째주 4째주 화요일에 담당구역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담당구역 별로 모니터링단 환경문제는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문가 위원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거버넌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월과 5월 회인천 축분관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마을 4곳에서 정화활동 및 주민환경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4월 8일 회인면 고석리, 4월 12일 회인면 부수2리, 5월 10일 회인면 송평1리, 5월 11일 회인면 신대리에서 주민분들 약 110여명이 참석하여 약 6톤정도를 수거하였고 정화활동 후에는 분리수거, 축분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환경교육을 실행했습니다.

올해 보은군 회인면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회인면 오동리 마을과 용촌2리 마을 이렇게 두 마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동리 마을은 회인천 상류지역에 있는 마을인 만큼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마을정화활동 및 수질모니터링 활동, 홍보활동 수생식물 식재 등 수질개선을 통해 회인천이 보다 깨끗해지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용촌2리 마을은 사후관리 사업으로서 지난해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2022년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이 회인천 지역에서 수질개선 실천활동을 통해 보다 깨끗한 회인천으로 바뀌고 나아가 대청호 수질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충청지역 400만의 식수원으로서 깨끗하게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대청호 알칼리도 관리한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수질관리소에 물속의 알칼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알칼리도 실시간 수질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알칼리도란 물 속에 산이 유입될 때 이를 중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돗물 생산 시 응집제 주입률 및 응집보조제 투입시기 결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이번에 설치되는 알칼리도 실시간 수질측정기는 대청호 원수의 알칼리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측정기와 측정데이터를 각 정수장으로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에 알칼리도를 정수장 유입 시 측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수장 유입 전 상수원에서 측정해 공유함으로써 장마철 고탁도 유입 시 원수 수질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청호 수질관리소에는 상수원 수질감시를 위해 추동수역 4개 지점의 물을 펌프로 이송해 탁도, 클로로필-a 등 6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또 작년부터는 수면에서 채수, 측정, 데이터 전송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 부이형 수질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알칼리도 수질측정기 설치를 비롯한 대청호 수질관리 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7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다.

명노충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는 원수 수질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알칼리도 수질자동측정기 신규 도입으로 대청호 수질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2022. 04. 05 김수진 기자

수자원공사, AI 기반 대청댐 수질예측 서비스 개발 추진

한국수자원공사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주관하는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사업 공모에 ‘AI 기반 대청댐수계 수질예측 서비스 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AI 기반 대청댐수계 수질예측 서비스’는 기후변화 등으로 이상수질 발생 패턴의 예측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취수원 수질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실시간으로 대청댐 수계의 수질 데이터를 수집·분석,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취·정수장 운영데이터의 실시간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냄새물질, 망간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AI 기반 알고리즘 개발△수질 이상 발생시 시나리오 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이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활용 중인 수자원공사와 대전시, 청주시, 공주시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올해 완공목표로 총 16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개발된 서비스는 향후 수자원공사가 론칭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워터플랫폼인 ‘워터라운드(wateRound)’를 통해 수도관리자와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대청댐 수계 주요 취수원의 수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도시설관리자 간 긴밀한 협업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수질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세훈 수자원공사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취수원 수질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수질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기여하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 등과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도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사회의 위험 요소를 ICT로 해결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있으며 ‘상수원·취수원 수질 데이터’ 과제 결과를 향후 수질예측 서비스의 전국 확산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시아투데이】 2022. 04. 27 이상선 기자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자연과 미래를 위한 플로깅 챌린지 실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5월 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오백리길에서 대전관광공사(사장 고경곤)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 대청호의 자연과 미래를 위한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

* 플로깅: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조깅)의 합성어이다.

이날 행사는 대청댐과 이 지역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대청호오백리길을 관리하는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힐링 공간인 대청호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두 기관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대청호 지역주민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관광공사는 이번 대청호오백리길 플로깅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 이후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이 물 문화를 즐기고 대전지역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는 기부 챌린지인 '대청호 플로깅 챌린지'와 '10억 보 걸음 기부 챌린지'도 시행한다.

'대청호 플로깅 챌린지'는 아름다운 대청호를 즐기고 보호하며 대전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프로젝트로, 대청호오백리길 대전 구간에 있는 디지털 스탬프 인증장소 중 1곳을 방문하여 플로깅 활동을 수행하고 사진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10억 보 걸음 기부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일상생활 속 걷기를 통해 나눔을 참여하는 것으로 챌린지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걸음 수가 10억 보를 달성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역 미래세대에 1,300만 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챌린지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걸음 수는 자동으로 누적되며, 챌린지 목표 걸음 수인 10억 보는 약 70만km로 지구 둘레를 15번, 대청호오백리길을 약 3,500번 돌 수 있는 거리다.

챌린지 참여는 '워크온(Walk on)' 앱을 통해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Walk on)' 앱을 설치한 후 참여하면 된다. 이 밖에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등 챌린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공식블로그(blog.naver.com/ilovekwa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훈 한국수자원공사 홍보실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 물 종합 기업으로, 국민들과 함께 자연과 미래를 생각하는 걸음을 내딛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챌린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

옥천군, 내수면 어족자원 방류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

옥천군은 내수면의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매년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비 지난해보다 사업비 2천9백만 원을 증액한 1억1천만 원으로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를 대청호에 방류한다.

5월 뱀장어 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7월에는 토종어류인 쏘가리(1만6000마리)와 동자개(5만2000마리)를 관내 대청호에 방류할 계획이다.

6일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선착장에서는 관내 어업단체 회원들이 참여하여 뱀장어 치어 1만 4천여 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어업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류 어종은 어업인의 주요 소득 자원이자 부가가치가 높아 인기가 많은 뱀장어를 선택하였고,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특성을 고려하여 희망 방류수역을 선정하였다.

이날 방류한 치어는 수산물안전성센터와 충북내수면연구소로부터 유전자검사와 전염병검사를 거친 전장 12.0cm 이상의 우량한 종자이며, 어업단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임원 10여 명이 수산 종자 방류사업에 참여하였다.

군 관계자는 "뱀장어 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쏘가리, 동자개, 붕어 등 토종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며,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옥천군에는 각망·자망, 다슬기 채취 등 어업허가자는 64명, 투망, 통발 등 어업신고자는 122명에 이른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상길마을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위례마을살이,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